

사설

# 철저한 반성 아래 의료시스템 변화해야

작년 12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신생아 4명이 80여 분만에 전원 사망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사고 직후 사망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조사가 이뤄졌고, 올해 1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는 신생아들의 사망원인으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감염을 제시했다. 신생아들이 사망 전날 투여 받은 영양제가 균에 감염됐다는 것이다.

21일 해당 사건의 첫 재판에서 수사당국은 한 주사약을 여러 번에 나눠 주사하는 '분주' 관행을 감염의 원인으로 제시하며 이대목동병원 측이 감염예방지침을 어겼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신생아 중환자실 실정을 맡았던 조수진 교수 측은 변호인을 통해 분주 관행은 40년간 사망사고가 없었으며, 보건당국이 수거한 영양제가 투약 이후의 과정에서 오염됐을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번 사건의 책임소재를 규명하는 과정은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이미 사건 당시로부터 반년 여가 지난 상황에서, 감염 시점과 발병의 원인을 찾는 것이 쉽지 않아서다. 하지만, '일부의료진의 과실'이라며 이번 사건을 넘겨서는 안 된다. 과도한 노동시간과 의료인력 부족, 만성적인 적자, 잘못된 의료체계 등이 겹치며 발생한 인재

라는 것이다. 관련 의사단체들 또한 사과와 유감을 밝히면서도, 의료진에게 모든 형사책임을 묻는 것에 대해 경계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수사당국의 주장대로 주사제 분주 관행이 문제라면 잘못된 관행을 유도하고 묵인한 구조와 정책에 도분명히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2008년 전국적으로 신생아 중환자 병상의 부족, 지역별 불균형을 인식해 총 645억을 투자하고 병상 당 연 800만원의 자금을 지원하는 등의 정책을 펴왔다. 2013년 의료수가 100% 인상, 간호비용 등의 증대로 적자는 어느 정도 해결됐으나, 전문의료인력은 계속해서 줄고 있다. 2011년 대비 2015년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는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는 8.8% 감소했고, 야간에 근무하는 전문의는 33.3% 감소했다. 신생아 전문의는 2%, 간호사는 11% 감소했다. 단순히 이대목동병원과 담당 인력의 실수가 아닌, 의료시스템의 실패라는 지적이 이어지는 이유다.

이번 사건은 봉쇄된 감염관리예방시스템은 물론 열악한 중환자실 의료현장에 대해 다시금 경종을 울렸다. 철저한 반성과 함께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국민이 안심하고 병원에 가고, 의료인이 소신껏 진료하도록 우리 의료시스템을 진일보 시켜야 할 것이다.

석탑추추

## 뜨거웠던 추억을 안고, 다시 일상으로

올해 석탑대동제도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듯하다.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공감하겠지만, 축제만큼 마음의 붕 뜨는 시간도 없다. 아마 본지 기자들에게는 신문 만들기가 가장 힘들었던 한 주였을 것이다. 편집실 창문을 뚫고 들어오는 축제의 열기를 애써 무시하면서 회의와 취재, 마감에 집중하는 것은 무척 괴로운 일이다. 기사 초고를 검토하고 있는 필자조차 입실렌트에 싸이가 왔다는 소식을 들은 지금, 마음이 벌써 녹지운동장으로 향하고 있다.

모두가 즐거운 순간에도 묵묵히 자신의 일에 집중하느라 여념이 없는 사람들이 있음을 (마감 때문에 놀지 못하는 억울함을 달래보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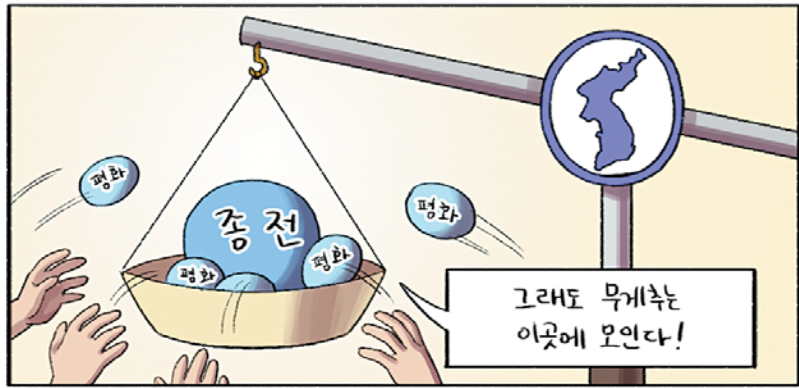
되새긴다. 주점이 끝난 자리를 깨끗이 청소하는 미화 노동자들, 학생들의 안전에 노심초사하며 바빠 뛰어다니는 캠퍼스폴리스 직원들, 즐거운 축제를 위해 목이 쉬어라 고통치는 기획단원들...

술이 들어가고 분위기에 취하면 크고 작은 실수들도 생기 마련이지만, 그래도 일상으로 다시 돌아온 그 순간부터 우리의 뜨거웠던 추억은 행복한 추억으로 남는다. 다소 미화된 기억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더불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도움을 주신 분들에 대한 감사함도 떠올릴 수 있다면 더욱 좋을 듯하다.

장강빈 취재부장 shining@

석탑만평

주재민 전문기자



## 고대신문사 The Korea University Weekly

1947년 11월 3일 창간	취재부장	장강빈	FAX	02-928-0879
주간	매주 월요일 발행	사회부장	김민준	메일 press@kunews.ac.kr
발행인	연재호	편집국	류승현	핸드폰 010-3363-1947
편집인 겸 주간	허태균	02-3290-1683	페이스북	/kunews1947
인쇄인	김교준	02-923-4408	엘로아이디	@고대신문
편집국장	이민준	044-860-1888	주소	서울시 성북구 안암로 145
	총무국	02-3290-1682		홍보관 2층

# 예루살렘의 열정과 국제정치의 냉정

시론



홍미정 단국대 교수 중동학과

올해 5월 14일 미국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인정하면서, 이스라엘 주재 대사관을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전 개관한 날 팔레스타인 가지지구에서는 항의 시위가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의 실탄 공격으로 팔레스타인인들 62명이 사망하고, 2500명 이상이 부상당했다. 그럼에도 16일에는 과테말라, 21일에는 파라과이가 대사관을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전하였다. 팔레스타인 민중들의 저항과는 관계없이, 시간이 갈수록 예루살렘으로 대사관을 이전하는 국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의 성지로 널리 알려진 예루살렘 구도시에는 8세기 초에 건설된 이슬람교의 성지 알아크사 모스크 복합단지, 4세기 초에 건설된 기독교의 성지 성묘교회가 존재한다. 그러나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유대교 성지는 없다.

그런데 19세기 말부터 유럽에서 시작된 시온주의 운동은 알 아크사 모스크 복합단지를 둘러싼 서쪽 벽을 근거로 3000년 전 솔로몬 사원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팔레스타인 땅에 유대국가 건설을 추진하였다. 시온주의 목표는 예루살렘(시온)을 중심으로 한 지역에

유대국가를 건설하는 것이다. 시온주의 운동의 결과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 국가가 건설되었다.

시온주의자들은 알 아크사 모스크 복합단지를 둘러싼 '서쪽 벽'을 '통곡의 벽'이라고 부른다. '통곡의 벽'이라는 용어는 1917년 영국이 오스만 제국으로부터 예루살렘을 정복한 이후에 영국이 유포해 고착시킨 용어다. 1차 세계대전 이후 영국의 팔레스타인 위임 통치기간 동안, 이 벽의 관리에 대한 이주민 유대인과 원주민 팔레스타인인들 사이에 투쟁이 시작되었다. 따라서 '서쪽 벽' 문제는 시온주의 정책을 추진하는 영국의 팔레스타인 점령과 동시에 발생하였고, 유대국가 이스라엘 건설을 위한 전조곡이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영국의 팔레스타인 위임통치 종결에 앞서, 1947년 11월 '유엔총회 팔레스타인 분할결의 181호'는 팔레스타인 지역을 아랍국가(43%), 유대국가(56%), 예루살렘 국제통치 지역으로 분할하였다. 그러나 이스라엘 국가 건설과 동시에 발발한 전쟁으로, 유엔 분할결의 181호를 위반하면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의 85%(서예루살렘, 50.5km<sup>2</sup>)를 점령하고, 요르단이 11%(동예루살렘, 6.5km<sup>2</sup>)를 점령했다. 그리고 남은 4%는 유엔본부에 있는 출입금지구역이 되었다.

이후 1967년 6월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동예루살렘을 포함하는 서안을 점령한 후 동-서 예루살렘을 통합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선언하였다. 1967년 7월 4일 유엔은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에서 행한 국제법 위반 조

치에 반대하여 총회결의 2253호 채택하였다. 이 결의는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의 상황을 변화시키는 모든 조치는 무효라고 규정하고, 이미 취해진 모든 조치들의 철폐를 요구하였다. 1947년 11월 181호 결의 이후 현재까지, 200번이 넘는 유엔 결의들은 모두 예루살렘 유대와 및 이스라엘 점령정책에 반대하는 결의들이다. 그러나 미국은 이러한 유엔결의들을 무시하고, 이스라엘 편을 들어주고 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과는 달리, 팔레스타인 편을 들어주는 통합된 아랍권이나 이슬람권이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지난 3월 미국을 방문한 사우디 왕세자 무함마드 빈 살만은 미국 유대인들을 만난 자리에서 "팔레스타인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두 가지 선택뿐이다. 트럼프의 세기의 협상을 수용하거나, 침묵을 지키면서 불평을 중단하는 것이다"고 팔레스타인인들을 협박하는 주장을 했다. 사우디를 비롯한 아랍왕국들은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20세기에 영국의 후원으로 건설되었고, 현재 미국과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매우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다. 따라서 아랍왕국들이 미국의 정책을 거스르며 팔레스타인인들 편에서 구체적인 행위를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현재까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에서 유럽 국가들과 러시아(소련 포함)는 친이스라엘 정책을 펴는 미국과 입장을 공유했다. 이러한 측면에서 현재 미국은 이 지역 정세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행위자이고, 이것이 국제역학축예루살렘의 모습인 것이다.

수레바퀴

## 오늘도 네가 있어 고맙다

지난 25일 미국 휴스턴에 위치한 도요타 센터에서 열린 '2018 NBA 플레이오프 서부 컨퍼런스 파이널 5차전'이 열렸다. 그 결과 휴스턴 로케츠가 전년도 챔피언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와의 5차전을 98대 94로 이기며 파이널 진출까지 1승만을 남겨뒀다.

휴스턴 로케츠의 크리스 폴은 최고 수준의 볼 핸들링 등의 개인기술로 NBA 최고의 포인트가드로 뽑히지만, 한국 NBA 팬들 사이에선 '그그큰'으로 언제나 비품의 대상이 되었다. 12년의 선수 생활에도 챔피언 반지는커녕 4강인 컨퍼런스 파이널조차 가보지 못해 붉은 별명이었다. 하지만 폴은 트레이드 이후 개인만 화려했던 플레이스타일을 즐기고 기존 휴스턴의 에이스 제임스 하든과의 환상적인 팀플레이로 지금은 파이널을 바라보고 있다.

최근 커뮤니티 '워마드 몰카 사건'을 두고 사회적 논란이 많다. 범죄자의 죄를 물어야 한다는 의견이 대부분인 가운데 남자의 잘못이 있었기에 발생했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 온라인매체의 기자가 개인 SNS에 작성한 '남자들은 분노할 자격이 없다. 그저 가해자임을 한없이 부끄러워해야 할 뿐이다'란 문장도 그러한 주장의 일부로 보인다. 이제껏 남성들이 속히 '국산 야동'이라 불리는 불법 촬영물들을 접해왔기에, '워마드 몰카 사건'에 대해 비난할 자격은 없다는 것이다.

2010년 아이티 지진의 피해자를 돕기 위해 리메이크된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의 'We Are The World'는 1985년 아프리카의 기근 피해를 돕기 위해 만든 곡이었다. 마이클 잭슨과 라이오넬 리치가 공동 작곡해 당대 최고의 팝스타들

과 함께 녹음하며 뜻을 함께한 이 곡은 세계적인 화제와 함께 아프리카 피해에 대해 세계적인 관심도 환기시켰다. 'We Are The World'에는 이런 가사가 있다. '우린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야 해요. 바로 당신과 내가 말이예요.' 이 노래는 지진 성금 모으기, 아이돌 합동 평화 콘서트 등 국내외적으로 함께 어려움을 이겨나자는 의미의 상징이 되었다.

몰카, 도촬, 불법공유, 2차 가해, 증거인멸 등 모든 범죄가 한쪽 성별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그렇게 차단시켜 놓고 함께 하자고 말할 수도 없을 것이다. 세상이나 혼자 풀 수 있는 문제는 제한적이다. 천재라 칭해지는 노벨물리학상 수상자들도 대부분 공동 수상인 것도 그 이유다. 함께 문제를 해결해보는 건 어떨까? 오늘도 네가 있어 고맙다.

류승현 학술 문화부장 ryus@

종단횡단

## 탈퇴하고, 취소하고, 그 다음엔 ...

이달 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년간 유지된 이란 핵 협정(JCPOA)에서 탈퇴하고, 대 이란 경제제재를 부활하기로 결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2015년에 이란을 포함한 7개국이 모여 체결한 핵 협정이 이란의 비핵화나 테러리즘 지원 활동을 억제하는 데 실패했다'고 주장한 이후 나온 결과였다.

이란만큼 미국에 적대적인 핵보유국으로 취급되는 나라가 북한이다. 이 때문에 미국의 핵 협정 탈퇴 이후 북미정상회담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도 국제사회의 관심사였다. 그리고 24일, 트럼프 대통령은 외교적 수사를 뺀 서한을 전 세계에 공개했다. 한 줄로 요약하면 '미국이 가진 핵이 훨씬 강하니 현실을 알라'는 내용이었다. 최근 한반도의 평화 흐름 속에서 대북 발언수위를

많이 조절했지만, 서한에 담긴 표현은 그가 '트럼프'라는 걸 다시 일깨워줬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예측 불가능한 정치적 행동을 많이 보여줬다. 적어도 평범한 사람의 시선에선 말이다. 이번 서한도 그런 행동 중 하나일까? 서한을 보내기 몇 시간 전 그는 폭스뉴스에 출연해 북한 비핵화 방식과 관련 "물리적으로 단계적 접근법이 조금 필요할지도 모른다"며 계획을 밝히기까지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과격한 표현을 사용하고 일반적으로 회답이나 협정을 파기하더라도 국제사회는 별다른 행동을 취하지 못한다. 이란 핵 협정이 파기됐을 때도 프랑스, 독일을 포함한 협정 당사국들은 유감을 표하는 데 그쳤고, 북미정상회담 취소도 청와대와 북한 측은 도리어 말을 사려야 했다.

이번 회답의 성사는 결국 미국과 트럼프의 의지에 달린 일이다. 북한 측도 회답 취소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미국을 기다릴 용의가 있다며 몇 발짝 물러섰다. 다행히 트럼프 대통령도 여지를 남기는 모양새다.

북한 최고 통치자에게 미국 대통령이 보낸 서한에 강렬한 내용이 담겼으니 당분간은 조심스러운 분위기가 형성될 것이다. 하지만, 서한을 보낸 지 하루도 안 돼서 트위터를 통해 드러낸 트럼프 대통령의 회망적 태도와 북측의 우호적인 발언을 감안하면 북미 회답이 재추진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위기를 잘 견뎌 북미 양국 정상이 가까운 시일 내 만나는 장면을 보기를 기대한다.

진현준 기자 perfact@